

## SERMON 5 MARCH 2017 LENT 1

여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에덴정원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정원 중심으로 그 이름은 좋은 것 같고 또 그곳에는 액세서리들을 팔기도 해서 그것이 우리 실외를 꽤 화려하게 만듭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에덴 정원을 실낙원의 종류, 전원적 장소의 종류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아마 짐작 건대, 만약 우리가 실외를 호화로운 분위기로 만들 수 있다면, 정원, 안마당 또는 발코니, 그러면 우리는 실낙원에 가까워 질것입니다.

깊은 성경적 인식과 함께 우리는 창세기 2 장으로부터 천국을 어떻게 잃었었는지를 이해 합니다. 정원에는 항상 뱀이 있었습니다, 뱀은 다른 어떤 창조물 보다 더 교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명령어로 이루어 집니다 "너는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훈계와 함께 그들은 순종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그 선택을 따랐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림자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을 인식할 때 유혹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 났는지를 압니다. 처음의 결정으로부터 처음 이름 불리어진 수치심이라는 감정의 불순종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무죄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간 후에는 결코 얻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 시험이 권력을 위한 것 일까요? 만약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이해력에 아무런 권위가 필요가 없다면, 그 선택은 그 음식이 단순히 먹기에도 좋아 보였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그것 뒤에 더 큰 어떤 것의 제안과 함께 말입니다. 결국,

이것 전에 무엇이 선이고 악입니까? 그것은 아담과 이브의 작은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이야기 1-3 장은 바벨론 탈출시기가 적힌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풍부한 구전 전통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꿈의 시대에 관한 것 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루어 지는지 하는 그들 방식의 이해, 모든 고대 근동 문명들이 그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빌론 사람 세대들은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세상에 어떻게 그리고 왜 선과 악이 존재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는지 말입니다? 창세기를 한 방향으로 읽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위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결과를 다루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과 악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시대로 돌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밖의 정원을 돌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 정원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동해야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믿음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천진 난만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이들이 어떤 지혜와 이해력으로 안전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정원의 문은 아이가 성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깥 더 어려운 환경에서 계속 배우고 자랄 수 있는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세상의 고통의 부분은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순수한 어린 시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원 밖에 있고 그리고 우리 주위의 세상은 여러 많은 다른 방법들이 아주 공포감을 줍니다. 우리에게 유혹 중에 하나는 희미하게 빛나는 에덴의 환상 우리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도전에 대해 우리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 합니다, 저는 이것을 결코 증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 집어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는 절대 두려움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물이 정말 뜨거워 질 때까지 따뜻함에 편안한 느낌을 느낍니다. 그것은 심상치 않은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 우리 주변 세상에 대한 인식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습니다.

지난 화요일 Janine Kitson 은 오픈 하우스에서 여기 로얄 국립공원에 관해서 그리고 미국에 엘로스톤 국립공원에 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녀는 생물 다양성이 바뀌었을 때 종의 균형이 바뀌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적했습니다. 그 영향은 심각하며,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변화는 인간의 개입의 결과입니다. 다행히도, 자연은 평형 상태가 조정되기 시작하면 저절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늑대들을 엘로스톤 국립공원으로 재 도입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공원들은 영적인 자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장소들이 없다면, 에덴의 암시들은, 우리는 빈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야생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창조는 행성의 건강을 위해 그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들은 항상 강력한 돈 벌이의 이익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나 보살핌의 투자의 필요를 심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태계의 온도가 올라감으로 우리 주위에 따뜻한 물에 있는 위험한 개구리 인가요?

우리 앞에는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생 장소들의 가치 그것은 또한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잃고 은행 경제의 중심을 볼 때 또는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실패합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정권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선택들 중 일부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권력에 대한 유혹은 공동체에 대항하는 것과 같은 수사학의 표어에서 나타난다, 환경이 무시당하거나 착취당하는 동안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도 그 길로 내려갈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매우 먼 길로 느껴집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을 초래하는 황무지 쪽으로 걷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직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여정과 또한 우리 가운데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내부로부터의 두려움, 그리고 혼자임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40 일 밤 낮 가진다면 그것은 5 주 이상입니다. 40 일을 그 자신과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와도 대화 하지 않고 그리고, 단지 사탄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40 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지 그는 마음으로 그리고

영혼으로 계속적으로 생각했습니다. 40 일 동안 아주 조금 먹었습니다. 밤이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하루가 부담이 되는지요! 그 유혹이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빵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극도로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은 영적인 필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셨으므로, 그 적막한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입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의 변형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갈망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자갈 밭에 심어진 씨앗같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수년 전에 에딘버러에 있는 Jock Dalrymple 라고 불리는 한 가톨릭 성직자가 운영하는 영성 코스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긴 여정은 마음의 여정"이라고 썼던 책을 원작으로 한 책입니다. 나는 지금 그의 이야기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구절은 기억합니다: 가장 긴 여정은 마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제 생각에, 그 여정은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가장 도전적인 여행이며, 사순절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여정입니다.

다른 시험에 대한 예수의 반응은 - 세속적인 권력과 그 도전들 - 다른 무엇보다도 그의 육체적인 굶주림을 채우는 다른 측면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피하기 위해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 대대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빵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위하여,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사는 곳을 위하여 말입니다? 문제점들은 많고 복잡합니다. 권력과 취약성에 관한 큰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어떤 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기초하여 세속적인 권력을 포기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질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 하여야 하나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권력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우리는 귀가 먹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쩌면 따뜻해지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점프를 해서 밖으로 나오라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숙고하기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 광야는 예수님에게는 쉬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도전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보다 더 우리 자신을 바라봄으로 광야의 경험이 다가오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받아들이면 광야는 더욱 삭막해 집니다. 약함은 항상 우리를 약한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과 약함의 길을 선택 할 때 우리의 성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에, 사순절의 온전함은, 마음의 긴 여정에 관한 성장의 모태가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훈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광야로 나갈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것은 낯선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의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연다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여정 할 때, 우리가 진실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 약속된 아름다움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